

CT  
268.이  
D 644 7

#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적 활동의 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 루터와 칼빈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덕 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3년 2월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이 강 헌



고신대학교



DM00000655

642

이 강 현 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92년 월

# 목 차

서	론	1
1	종교개혁의 배경	2
	A. 사회·정치적 영향	2
	B. 경제적 영향	3
	C. 인문주의 영향	3
2	루터와 칼빈의 신학 사상	5
	A. 성경론	5
	1) 루터의 성경론	5
	2) 칼빈의 성경론	8
	3) 루터와 칼빈의 성경론 비교	9
	B. 인간론	10
	1) 루터의 인간론	10
	a. 인간의 원시상태	11
	b. 인간의 타락한 상태	12
	2) 칼빈의 인간론	14
	a.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14
	b. 원죄로 타락한 인간	16
	c. 구속 받은자로서의 인간	18
	3) 루터와 칼빈의 인간론 비교	18

C. 교회론 .....	20
1) 루터의 교회론 .....	20
a. 교회 존립 기반으로서의 말씀 .....	20
b.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	21
2) 칼빈의 교회론 .....	22
a. 교회의 본질과 말씀 .....	22
b. 참된 교회의 표시로서의 말씀 .....	24
3)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 비교 .....	26
3.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	28
A. 교육목적 .....	28
1) 루터의 교육목적 .....	28
2) 칼빈의 교육 목적 .....	30
3) 루터와 칼빈의 교육 목적 비교 .....	32
B. 교육 내용 .....	33
1) 루터의 교육내용 .....	33
2) 칼빈의 교육 내용 .....	37
3) 루터와 칼빈의 교육내용 비교 .....	39
결    론 .....	41
□ 참고 도서 □ .....	43

#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적 활동의 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 루터와 칼빈 중심으로 -

## 서 론

교회사가 필립 사프(Philip Schaff)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발생 다음으로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다. 종교개혁 운동이 성 어거스틴이 그리했던 것보다 더 깊이 복음의 내용에 파고 들어간 것은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또 성경을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생활, 교훈 등에 담긴 그 복음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족성은 종교개혁의 생명이 약동하는 원리이며 맥박이 뛰는 심장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본질적 통일 원리이다” 라고 말하였다.<sup>1)</sup>

루터와 칼빈은 대표적 종교 개혁자들로서 신학자, 주석가, 설교가로서 업적을 남기었으며, 교육자로서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었다. 이들은 일생동안 많은 저작물을 남기었지만 교육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는 남겨지지 않는 아니 하였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여러가지 저술과 그들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교육 활동 등은 그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결국 성경의 의미와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한 운동의 열매였다. 종교개혁자들의 교육 사상을 바로

1) Philip Schaff, Creed of Christendom 1 (New York: Harper Brothers. 1977)I, 204.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개혁적 확신과 교육적 열정을 가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 종교개혁의 배경

### A. 사회·정치적 영향

16세기의 시작 무렵의 그리고 16세기가 끝날 때까지 독일은 실제적인 주권 국가들이 난잡하게 뒤섞인 상태였다. 신성로마 제국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명목상의 통치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강력한 제후들의 이권다툼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우기 합스부르크의 왕과의 황제들은 독일 여러지역에 세습적인 통치자이며, 동시에 전체 국가들에 대한 선제후 통치자였기 때문에 전체에 앞서서 자기네의 세습적인 이익을 앞세웠으며 이것이 국가적인 연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는 두가지 방향의 민족주의가 침투해있었다. 첫째로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봉건영주들의 저지를 뛰어 넘어 전체적인 감정으로 발전하였다. 둘째로 독립국가들-예를 들면 스위스, 네덜란드, 보헤미아-이 전통적으로 독일이라 불리는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다.<sup>2)</sup> 이렇게 볼 때 근대 민족주의는 중세의 종합을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종교개혁으로 표출되는 종교적인 균열의 길을 열어놓아 왔다.<sup>3)</sup>

2)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28.

3) Ibid., 28-29.

## B. 경제적 영향

여기에 첨가 해서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은 변화를 촉진 시켰다. 특히 이 요소는 도시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힘들이 모임으로써 지주계급의 귀족들보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가난한 귀족계급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서 사회의 한 계층으로 부각되었다. 농민들의 빈곤은 부가 도시시로 집중되어서 가중되었으며, 특히 그와같은 농업이 아닌 상업으로 부터 유래되었음이 더욱더 주목할 만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교황과 황제, 고위 성직자와 지주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통치력을 보전 할수 없었다. 교회행전의 모든체제가 봉건사회의 체제안에서 봉사하는 역할로 성장되었다. 도시와 자본력은 시민적이며 교권적인 구조 내에서는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품은 농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기에 좋은 토양을 만났다. 힘을 잃은 귀족들은 자기네들의 지도력을 제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추구하였다.<sup>4)</sup>

## C. 인문주의 영향

15세기와 16세기의 특징 이라고 부를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진전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에 확산된 인문주의적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동안에도 라틴 고전에 대한 동경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저술의 원천으로서 그것들을 인용하였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이르러서 건축, 조각, 그림 등에서 보여 주듯이 고전적

4) Ibid.

5) Ibid., 34.

인 관심이 문예부흥의 한몫을 차지 하게 되자 고전문학에 대한 재현이 활발하게 되었다. 한편 콘스탄틴 노플의 함락과 더불어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하여 오면서 희랍어와 희랍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자료와 더불어 들어오게 되자 이러한 재현운동은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희랍어는 유럽 전역에 걸쳐서 곧 지식층의 일반적인 필수 구비사항이 되었으며, 고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폭넓은 추구가 열린 셈이다.<sup>5)</sup> 이러한 대역사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희랍어 신약성경이다.<sup>6)</sup> 이것은 성경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이다.

이와같이 종교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 인문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재발견이며,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종교개혁의 불꽃을 당긴 루터는 자기의 성경적 주장을 철회하라고 위협하는 찰스5세 황제와 의회, 영주들, 추기경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니 말씀에 대한 확신에찬 음성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 존엄하신 폐하와 높으신 분들께서 단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시므로, 저는 아무런 주석도 단서도 붙이는 일 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 (왜냐하면,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결정만을 신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모순되고 실수를 저지른 예가 많았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의하여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5) Ibid., 34.

6) Ibid., 35.

7) 정정숙,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총신대 출판부, 1983), 24.

8)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컨콜디아사, 1982), 134.



아무 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할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여 ! 도우시옵소서. 아멘.”

## 2. 루터와 칼빈의 신학 사상

### A. 성경론

#### 1) 루터의 성경론

루터의 사상과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원한다. 그의 종교적 체험과 신학적 발전은 “말씀”에서 나왔으며 또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제거되었다.<sup>7)</sup>

성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그의 영감을 통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루터는 “말씀”을 전인적인 신의 계시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의 계시이다. 성서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멧세지를 나타내 주신다. 이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해하거나 식별할 수 없다.<sup>9)</sup>

루터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7) 정정숙,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총신대 출판부, 1983), 24.

8)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컨콜디아사, 1982), 134.

9) Ibid., 137.

10) Ibid., 137.

11) Ibid., 143.

12) Ibid., 131~133.

13) Ibid., 138~139.

력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임하지 않는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서까지도 결실을 맺게 한다.<sup>11)</sup>

그는 가끔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증거한 바 있다. 나는 “말씀”없이 낙원에서도 살 수 없으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에서도 용이하게 살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으로만 위로를 받으며, 또한 이 소망으로 우리가 모든 형식의 환난과 십자가를 극복하는 것과 같다.

“나에게는 이것(성서)밖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것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며, 또한 종으로 된 이 책 외에 다른 아무 위로도 가지지 못하였다.” 의인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은 성서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성서 가운데 있다고 루터는 보아 성서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거부했으며, 이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간에 한결 같이 공격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성서의 중심내용이라고 루터는 생각하였다. “Ego non intelligo usquum in Script. nisi Chrestum crucifixum.”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그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sup>12)</sup>

“성서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Die Schreft kann nicht irren)고 루터는 자주 말하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성서 가운데서, 아무도 반대해서는 안될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Ein Klarer Spruch aus der Schreft, so viel bewegen, als die Welt voll Schreft.” 이 말은 한 마디의 성구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보

11) Ibid., 143.

12) Ibid., 131~133.

“성서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Die Schreft kann nicht irren)고 루터는 자주 말하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성서 가운데서, 아무도 반대해서는 안될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Ein Klarer Spruch aus der Schreft, so viel bewegen, als die Welt voll Schreft.” 이 말은 한 마디의 성구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보다 더 힘있다고 한 말과 비슷한 뜻이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개혁자는 말하였다.<sup>13)</sup>

성서는 루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일한 권위로 존속하였다. 요약하여 말하면 루터에게는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계시의 말씀(the revealed Word of God)이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멧세지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이 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성서가 확증해 주는 진리에는 과오가 없으며, 또한 이 진리는 어떤 진화과정의 결과로 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멧세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권위의 입증은 성령의 증거 곧 성령께서 항상 우리들 가운데 신앙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성서는 영감 받은 저자들을 통하여 쓰여진 것이며, 성령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인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자신이 쓴 성서 밖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성령은 성서 밖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 성령을 매개하는 것은 다만 말씀 뿐이다. 그 말씀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길

13) Ibid., 138~139.

14) 지원용, op. cit., 140, 141.

15) 정정숙, op. cit., 152.

은 말씀 자체를 통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다.”<sup>14)</sup>

## 2) 칼빈의 성경론

칼빈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신학의 기본적인 자료요, 그는 논리구조의 표준이 된다.<sup>15)</sup>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학의 방향을 결정한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든 투쟁은 성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6)</sup> 칼빈의 신학을 성경 중심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신학의 바탕과 방향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sup>17)</sup> 칼빈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늘 교리에 관한 기록, 즉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아울러 인간들이 손을 통하여 쓰여진 책으로(from heaven) 이해하고 있다.

18)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근원이 성서들임을 아니 오직 성서들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성서들이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알아야 될 필요한 것이나 유용한 것이 하나도 빠져있지 않는 것처럼 알아서 유익한 것이 아니면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들 속에 그의 진리의 “신학”을 공탁하셨으므로 그리고 성경들이 하

15) 정정숙, op.cit., 152.

16) Ibid., 162.

17) Ibid.

18) Ibid., 161.

19) Reinhold Seeberg, op.cit., 413.

20) 정정숙, op.cit., 161.

21) Ibid.

22) J. calvin,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서울: 혜문사, 1982), 1.7.

23) Ibid., 155.

24) 정정숙, op.cit., 153.

25) Ibid.

26) 정정숙, op.cit., 24.

어 그들의 천재를 총동원하여 집중 공격하는 오만을 면다 할지라도 저들이 파렴치한 철면피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 속에 교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는 성경속에 있는 책이 천하 모든 책들을 절대적으로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것이다. 아니 우리가 명석한 눈과 진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어 우리의 건방진 반대는 완전 진압되어 버릴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것이다.22)

“이에 대하여 나는 성령의 증거를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이 마음속에 신뢰를 얻을수가 없기 때문이다.23)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강하게 전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된다.24) 그의 성경 주석들은 성경 중심의 신학원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으로서 실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사상을 정립시켰다. 그의 신학은 성경의 신학이요, 성경에서(from Bible)의 신학이다.25)

### 3) 루터와 칼빈의 성경론 비교

22) J.calvin, 「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서울: 혜문사,1982),1.7.

23) Ibid.,155.

24) 정정숙, op.cit.,153.

25) Ibid.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학사상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Phillip Schaff)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발생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sup>26)</sup> 라고 하였다. 또 그는 “종교개혁운동이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또 성경을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종교개혁의 생명의 약동하는 원리이며 맥박이 뛰는 심장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본질적 통일의 원리이다.”<sup>27)</sup> 라고 하여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에 대한 회복이요, 확신이 섰음을 보여준다.

루터의 종교적 경험과 신학적 발상은 말씀에서 나왔으며 그 말씀에 배타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가 성경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모든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sup>28)</sup> 라고 하였다.

칼빈은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9)</sup>

루터와 칼빈은 당시 성경을 떠나 부패와 오류에 빠진 로마교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대항하여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개혁운동은 말씀을 통한 승리이다.

## B. 인간론

26) 정정숙, op.cit., 24.

27) Ibid.

28) 지원용, op.cit., 131.

29) J. Calvin, op.cit., I. 6. 3

## 1) 루터의 인간론

인간에 관한 문제는 신학의 불변의 관심사중의 하나였으며, 또한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교육이 절저히 계획되고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sup>30)</sup> 그의 인간발견은 그의 교육사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정체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귀중한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 루터는 이러한 인간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였다.<sup>31)</sup>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하신다. 루터가 관심을 가진 큰 명제는 “인간이 속한 곳에 속하게 하는 일 (Velle hom-inum esse hominun)”이다. 그는 인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sup>32)</sup>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및 신-인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자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만 그의 사랑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의 유일한 원천인 하나님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보기전에는 그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향하여야 하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교육분야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sup>33)</sup>

### a. 인간의 원시상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Home est creatura pei)라는 문제는 루터

30) 지원용, op.cit., 92.

31) Ibid.

32) 정정숙, op.cit., 19.

33) 지원용, op.cit., 93.

의 인간학에 대한 정의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 피조물이라는 명제 가운데 루터의 근본 메세지가 들어있다. 34)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35)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의 상태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36)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업적(pus Dei Singulare)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37) 그러나, 그 인간은 과도기적 상태 -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상태 -(pueril em inno centian)에 있었다. 38)

타락하기전에 낙원에 있었던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으나 최고의 삶(a higher lide)을 지향해 나가는 도중에 있었으며 지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다. 39)

루터의 인간론중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은 첫째로, 인간이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의미한다. 둘째, 이것이 전체적인간(the total man)인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받고 성령에 의하여 성화받는 것을 의미한다. 40)

#### b. 인간의 타락한 상태

루터의 인간론 두번째 국면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본래 소유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은 사

34) Ibid., 96.

35) Ibid.

36) 정정숙, op.cit., 20.

37) 지원용, op.cit., 98.

38) Ibid.

39) 정정숙, op.cit., 20.

40) Ibid.



탄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41) 불신은 죄의 근원이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것이었다. 42)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극이다. 43)

타락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으며, 본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파괴되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악마의 형상 (image of devil)을 소유하게 되었다. 4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 상실하였다. 45)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기까지 타락하였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게까지 타락하였다. 46) 루터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책인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였다. 47) 루터는 원죄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루터는 로마의 펠리기우스주의에 반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을 옹호했다. 이 반대는 원죄의 주제에 대한 루터의 진술에서 중추신경을 형성한다. 48)

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으며 모든 인간은 아담안에서 범죄하였다. 왜냐하면 부계의 정자가 대대로 부패를 자손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49)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성요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

41) Ibid.

42) 지원용, op. cit., 106.

43) 정정숙, op. cit., 21.

44) 지원용, op. cit., 108.

45) 정정숙, op. cit., p. 21.

46) 지원용, op. cit., 108.

47) Ibid., 109.

48) Reinhold Seeberh, op. cit., 334~335.

49) G. I. Neve op. cit., 354.

대로 잔존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사악한 성질의 본성 부패된 본성 죄에 의해 오염된 혈육이다. 50)

루터는 인간의 자연적 타락을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그는 자연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연의 빛”은 실제로 선을 알리지 않고 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떠 바친다. 51)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성이 마귀의 매춘부로 나타나기는 할지라도 법과 질서의 세속적인 일에서는 이성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다. 52)

루터의 인간론은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타락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되었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받은 존재(인간)는 자유인이면서 종이다. 53)

## 2) 칼빈의 인간론

칼빈에 의하면 참된 인간의 본성을 알려면 현재대로의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 못된다고 한다. 54)

인간성이란 철저하 타락하여 어떤 선행이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인간의 육체적 관능적 욕구는, 애정, 의지 그리고 지능등 인간의 모든 요소들이 사악하고 타락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55) 이와 같이 전인이 부패되었다. “머리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한점의 선도 발견할 수 없다.” 56)

50) Reinhold Seeberg, op. cit., 335.

51) Ibid.

52) Ibid.

53) 정정숙, op. cit., 24.

54)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부산고신대 출판부, 1976), 36.

55) Elmer L. Towns. op. cit., 257.

현상태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인식할수 없다. 57) 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재발견할 수 없다. 58)

칼빈의 인간론은 세속적 인간관과 다르다. 그는 인간에 관하여 논할지라도 항상 강조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59) 칼빈의 인간관은 성경을 근거로하여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6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하는 성경에 기초한 칼빈의 견해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서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61) 이처럼 말씀은 인간의 첫 본성에 대하여 매력적으로 말하여 준다. 그것은 어느 시대의 인본주의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62)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 지혜, 선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63)

창세기 1:1 - 2:24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세가지 용어 즉 가르고 만들고 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4)

56) Reinhold Seeberg, op. cit., 548.

57) 이근삼, op.cit., 138.

58) Ibid.

59) 정정숙, op.cit., 165.

60) Ibid.

61) Ibid.

62) 이근삼, op.cit., 137.

63) Ibid.

64) 정정숙, op.cit., 165.

빛과 어둠을 갈라 시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수직적 가름과 물과 불의 수평적 가름을 통하여 공간을 만드셨다. 이 창조의 테두리안에다가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후에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또 인간을 빚으셨다. 65)

인간은 모든 창조사역의 왕관이다. 66)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며 그 머리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명하여진 것이다. 67)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것” 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68)

#### b. 원죄로 타락한 인간

칼빈은 인간권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하여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69)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며 불순종의 결과이다. 이것은 불신앙으로부터 연유되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70)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다. 그의 죄의 속성은 그의 후손에게 유전되었다. “타락한 뿌리에서 타락한 가지가 나왔다.” 71)

아담의 죄가 거의 자손의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

65) Ibid.

66) Ibid.

67) 이근삼, op., cit., 138.

68) Ibid.

69) 정정숙, op. cit., 167.

70) Ibid.

71) Reinhold Seeberg, op. cit., 547.

72) 전영의 원인은 육체의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혼의 신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수여해 주셨던 은사들은 무엇이든지 자신과 그 후손을 위하여 획득할 수 있는 동시에 상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작정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다. 73)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육체적 사망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고 인간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졌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계속해서 자연적인 능력들이 남아 있는데 그 능력들은 정치적인 일들 과학및 예술등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들이다. 비록 그 능력들이 부패되었을지라도 말이다. 75)

칼빈은 육체나 지성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였는데 정치분야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76) 그러나 인간 이성엔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더 깊고 본질적인 인색을 인간에게 주는 점에서는 무력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인식이란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77) 인간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자기를 잃고 세계와 자연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 그러고도 그것을 자유라 부른다. 이런것이 현대의 인간상태이므로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은 이렇게 노예상태에 빠져서 날마다 더 깊이 빠져들어 가고 말았다. 인간은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인간의 파멸을 의미

72) Ibid.

73) Ibid.

74) Ibid., 68.

75) Reinhold Seeberg, op. cit., 548.

76) 이근삼, op. cit., 136.

77) Ibid., 137.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sup>78)</sup>

### c. 구속 받은자로서의 인간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인간관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sup>79)</sup>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창세적 그리스도안에서 자기백성으로 선택하시고(엡 1:4, 딤후 1:9)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sup>80)</sup>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인간들에게 확신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에게 속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으므로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sup>81)</sup>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찾게 되었다.<sup>82)</sup>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증보사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 받은 죄인은 비록 죄인일지라도(구속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여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sup>83)</sup>

### 3) 루터와 칼빈의 인간론 비교

루터가 인간론에서 큰 관심을 가진 명제는 “인간이 속할 올바른 곳에 인간을 속하게 하는 일”이었다. 인간은 그가 있어야 할 적절한 영역에

78) Ibid., 138 - 139.

79) Ibid., 139.

80) 정정숙, op. cit., 168.

81) Reinhold Seeberg, op. cit., 548.

82) 이근삼, op. cit., 139.

83) 정정숙, op. cit., 169.

있게 한다는 이 문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으며, 또한 오늘날 전인류의 문제이기도 하다. 루터는 이 중대한 문제를 결코 잊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이어서는 안된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그 자신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칼빈의 인간론은 성경을 근거로 하며, 성경은 인간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간으로 이해한다. 칼빈은 인간 실존의 의미와 인간 본성과 운명에 관해 인간관의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찾아 해결코자 하였다.<sup>84)</sup>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만물들과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재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이해의 핵심이다.<sup>85)</sup>

루터와 칼빈의 인간론의 두번째 국면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으며 다만 악마의 형상만 인간에게 남게 되었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루터는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칼빈 또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다고 말한다.<sup>86)</sup>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즉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회복케 하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인간에게 오는가 칼빈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형성되고, 이 신앙은 인간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sup>87)</sup>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신앙과 말씀이 매우 밀

84) 정정숙, op. cit., 165.

85) 윤두호,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서울: 장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59.

86) 이승기, “루터와 칼빈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연구”(대전: 침신대학원 논문 1988), 36.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

### C. 교회론

#### 1) 루터의 교회론

##### a. 교회 존립 기반으로서의 말씀

루터의 신학을 신앙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루터의 신앙의 바탕이 성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학을 소유한 루터는 교회도 장소나 시간 그리고 구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박하게 가르쳐지며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sup>88)</sup>

루터는 종교 개혁자의 입장에서 여하한 기구적인 교회상, 여하한 교권 제도적 교회상에도 반대하며 교회는 사도들을 계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며 어디서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sup>89)</sup>

사실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말씀이 전파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알아듣고 또 어디서나 “보이는 말씀” 즉 “Verbum visibile”로서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 오히려 교회가 된다.<sup>90)</sup> 루터는

87) J. Calvin, 「기독교 강요」, III.1.3.

88) 지원용, 「말틴 루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255.

89) 하인리히 오토, 「신학해제」 김광식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4), 369.

90) Ibid., 376.



“나는 무슨 표시(signo)로 교회를 인식 할 것인가?” 묻고 교회의 표시로 세례와 빵,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면서 “너는 세례와 빵과 복음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떠한 장소이든지 어떠한 인격이든지 상관없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고 권고한다.<sup>91)</sup>

대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적(mark)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로 교회는 말씀이 참으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합당하게 집행되는 곳에 있다고 설정하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 b.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루터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로 모셔오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고 한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교회의 바탕을 우선 말씀의 신학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신앙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2)</sup>

중세 로마교회의 은혜의 방편의 구조를 개혁하여 루터는 은혜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안에 나타나 있음을 말했다. 또 성례전의 기계적인 집행으로 교회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직자의 특권의 토대로 삼던 교회제도를 개혁하여, 루터는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본래의 사명이며 이 사명은 그리스도 자신에 세우신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성례전 의식을 개혁하여 초대교회 시대의

91) Ibid.

92) Ibid., 390.

단순한 의식을 가진 교회를 회복시킨 것이다.<sup>93)</sup>

이렇게 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또 존재하게 되므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또한 그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 말씀의 선포에 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의 구원의 은혜를 알며 경험하며 또 받게 되는 것이다. 루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말씀의 선포였다.<sup>94)</sup>

## 2) 칼빈의 교회론

칼빈은 루터와 같은 입장에서 교회론을 성경본문에서 찾으려고 했고, 교회를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화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연합된 집단 즉 “거룩한 공회”라고 하였다. 이 “거룩한 공회”는 지상의 가시적 교회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전부를 포함하는 불가시적 교회도 포함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계획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 까지 주께서 교회에 계시므로 교회의 기초는 “비밀한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유에서 온 것”이요 “거룩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면서 또한 “우주적인 것”이라고 칼빈은 보았다.<sup>95)</sup>

### a. 교회의 본질과 말씀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가시적인 교회를 “믿는자들의 어머니”라는 말로서 요약한다.

93)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215.

94) Ibid., 216 - 217.

95) J. Calvin, 「기독교강요」, IV.1.7

이러한 제 목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품에 그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의 도움과 목회에 있어서 양육하시고 그들이 성장하여 믿음의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머니다운 보호에 의해 인도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96)

칼빈은 교회를 “신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를 통한 신도의 교육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단번에 자기백성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나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양육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령한 교리를 설교할 목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교사들을 택하여 세우셨다. 97)

하나님이 그의 교회의 권위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의 우리와 같은 소리로 듣는 자를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통역자를 세우셔서 자기에게 친히 이끌어 주시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98)

교회는 그 입을 통하여 말하는 복음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크신 은혜이며, 이같은 것을 하나님은 목사들에 의해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하시고져 한다. 99)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의 증언자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계신다.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그와 교제하게 되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에 참여한다. 100) 그는 우리를 올바른 가르침의 방법에 구속시키신다. 따라서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이 종교적인 교육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은 순수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선교의 명예를 짊어지

96) Ibid., IV.1.4

97) Ibid., IV.1.5

98)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184.

99) 니젤, op. cit., 183.

100) J. Calvin., IV.1.1

고 불신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sup>101)</sup>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권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102)</sup>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조명하는 일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만약에 이 직무를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인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인 것이다.<sup>103)</sup>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가능성들과 신 인식에의 단서들을 버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우리에게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sup>104)</sup>

#### b. 참된 교회의 표시로서의 말씀

개혁자들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여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복종으로 옛 교회(Catholic Church)위에 새로운 보이는 교회를 세웠다. 일반적으로 참된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의미해 왔다. 칼빈은 신약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따라 이상적인 교회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소명감이 있었다.<sup>105)</sup>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실현시키려 했는데 기독교강요 4권 교회론 제 2장에서 다른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비교 연구였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그 결과였다.<sup>106)</sup>

칼빈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 하리라”<sup>107)</sup> 는 말씀을

101) 김이태, “칼빈의 교회혁신의 저력” (기독교사상, 1975), 34.

102) J. Calvin, op. cit., IV.1.5.

103) Ibid., IV.1.6.

104) Ibid., IV.1.5.

105) 칼빈은 엡 4:11-13의 주석에서 그의 교회관을 찾았으며 ‘교회의 참되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말했다. (cf. 파커, 「칼빈의 모습」 김재준 역(서울: 기독교서회, 1958), p. 83.

106) J. Calvin, op. cit., IV.2.1

들어 천국의 교리를 설교하는 직분 -목사와 교사- 을 통하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참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sup>108)</sup>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계속 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 제네바 신앙고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sup>109)</sup> 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무례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귀를 막아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sup>110)</sup>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절망한 자를 소망으로 이끄신다. 확실히 교회는 설사 외적인 형식이긴 하지만 설교에 의하여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거나<sup>111)</sup> 자라게 하며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다.<sup>112)</sup>

로마 교회주의자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적인 기능을 자랑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없어도 될 것을 나열하나 교회는 외부적인 형식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sup>113)</sup> 까닭은 주께서는 그의 말씀이 들려지고 고찰되어지는 곳 외에는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14)</sup>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

107) 사 59:21.

108) Calvin, op.cit., IV. 1.5.

109) 이장식, op.cit., 231.

110) J. Calvin, op.cit., IV.1.5.

111) 참 교회의 표식의 하나인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백인과 흑인의 차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없어지고 하나로 결합되어진다. 이는 성령의 공동언어로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112) J. Calvin, op.cit., IV.1.5.

113) 렘 7:4,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성전 신앙을 논박하여 '이것은 주의 전이라, 주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로써 자랑하지 하라'고 했다. J. Calvin, 기독교강요 IV.2.3.

114) J. Calvin, op.cit., IV.2.3.

무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사람이거나 장소에나 혹은 외적 의식 집행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115)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116) 칼빈은 이 말씀으로 교회의 특수성을 삼음으로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단체가 아님을 말한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또한 말씀이 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령은 말씀의 터위에서만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교회의 안내자이다. 117) 교회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란 지금까지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118)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며 이것은 교회가 살아 행동하도록 한다. 교회는 그의 행동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들은 자가 교회를 섬기며 사는 봉사자가 되도록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결부 시키면서 성령의 역사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단순한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119)

### 3)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 비교

115) 칼빈은 주께서 교회의 영속적인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치셨다고 한다. “진리에 속한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요18:37) “나는 선한 목자니 나의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20:27) “양은 그들의 목자를 안다. 까닭은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아니한다. 까닭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요10:4-5) J. Calvin. 기독교강요 IV.2.3.

116) Ibid., IV.1.9.

117) 요 16:7,13.

118) 요 14:26

119) J. Calvin, op. cit., IV.8.13.

루터에게 있어서 기독교론을 떠나서는 교회론을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었다. 말씀이 교회를 형성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최후의 규범이 된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허락하거나 제정할 수 없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는 또한 말씀과 성령과 결부시켜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으므로 그 곳에 교회가 있게 된다고 말한다.<sup>120)</sup>

칼빈은 루터와 같은 입장에서 교회론을 성서본문(Biblical Texts)에서 찾으려 했고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화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연합된 집단 즉 “거룩한 공회”(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였다.<sup>121)</sup>

루터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거기서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믿게 됨을 선포한다.<sup>122)</sup> 참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제정하는 성례를 시행하고, 그 밖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을 역설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본, 성도들의 사귄,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 해석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하는 것인데 주로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믿는자들이 어머니로서 교회

120) 정상운, “루터의 교회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1986), 35, 36.

121) J. Calvin, op. cit., IV. 2. 1.

122) 정정숙, op. cit., 29.

를 요약함으로써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루터와 칼빈 양자 모두가 교회론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형성되고 존재해 나가고, 확장된다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 3.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 A. 교육목적

##### 1) 루터의 교육목적

루터의 교육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높고 고상한 목적은 없다.<sup>123)</sup>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료인간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하였다.<sup>124)</sup>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생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위한 사랑에 적합하도록 행하는 것이다.<sup>125)</sup> 루터가 주장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모든 인생항로에 적용하도록 하며 또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모든 타입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의 있게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sup>126)</sup>

그가 보는대로는 이와 같이 교육의 기본 목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것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7)</sup> 한편 루터는 근대 교육계에서 강조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123) 지원용, op. cit., 243 .

124) 정정숙, op.cit., 32.

125) 지원용, op. cit., 243.

126) 정정숙, op. cit., 32.

127) Ibid.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28)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교육이란 종교적인 목표에 귀착시킴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시켰다. 이것은 그의 교육사상이 신학적인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129) 그의 교육관은 확실히 그의 신학적 견해에서 유래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교육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볼때 루터가 명확히 계통을 세워 말한 교육의 과업은 역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율있게 양육하고 피차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식의 증진과 인격의 도야를 성취하려는 데 있다. 130)

그리스도의 종교는 모든 가치있는 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루터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고등한 관심사로 여겼다. 131)

종교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종교의 중요성을 더욱 알 수 있다. 132) 루터의 교육 개념을 살펴보면 한편에는 종교교육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도덕교육 곧 아이들을 크리스찬 신사 숙녀로 육성하도록 하는 두가지 명확한 관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그에게 향한 존경심으로 화하게 된다. 133) 루터는 종종 교육의 과제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말하였다. 134) 또 이 삶은 이웃에게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35)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봉사하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고 다만

128) Ibid.

129) 정정숙, op. cit., 32.

130) 지원용, op. cit., 244.

131) Ibid., 225.

132) 정정숙, op. cit., 33.

133) 지원용, op. cit., 245-246.

134) Ibid, 245

135) 지원용, op. cit., 245.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그 동료 인간들을 통해서만이 실천할 수 있다.”

136)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료인간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루터의 교육 목적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137)

## 2) 칼빈의 교육 목적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것이니라.(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서 제 1 문에 대한 답)”고 하는 신앙고백서의 토대위에서 생의 모든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다.

칼빈도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위에서 그의 전 사상과 생을 펼쳤던 것이다.<sup>136)</sup>

칼빈은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서의 기초가 된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서문에서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가진 교육목적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사: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어린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린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주심

136) Ibid., 246-247.

137) 정정숙, op. cit., 33.

138)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유관” (고신대학 교수논문집 제13집, 1985), 79.

으로 우리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향하는 것이 분명 옳은 것입니다. 139)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교육목표는 매우 자명하게 드러난다. 140) 위에서 밝힌 신앙 입장은 극히 포괄적인 칼빈사상의 근원적인 원리이다. 이는 또한 그의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141)

위에서 칼빈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앎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한 경건의 앎인 것이다. 그러기에 칼빈은 인간을 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파악하고 있다.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을 더욱 명백히 해준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사람이 자기자신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라 본다. 142)

“인간은 인식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인식이 있으므로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고 교정도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이 칼빈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교육은 결코 지식이나 학문의 추적은 아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신앙자의 형성을 의미한다. 즉 그의 교육은 인간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정의 활동에도

139)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고신 대학 부설 교회연구소 1981), 114.

140) Ibid., 115.

141) 김용섭, op. cit., 80.

142) 강용원, op. cit., 115.

요구한다. 그것을 앎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저심정과 심의를 총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심지적인 훈련인것이다. 143)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된다 144) 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칼빈의 신학적 토대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 145) 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도 종교교육 뿐만 아니라, 세속교육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함에 귀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다. 146)

일반교육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147) 칼빈이 추구하는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148)

### 3) 루터와 칼빈의 교육 목적 비교

루터가 주장한 교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모든 인생항로에 적용하도록하며 또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모든 타입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의 있게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149) 또 루터는 이어서 하나님 말씀과 교육목적에 관련하여 말하기를 이와같이 하나님 말씀에서의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150) 라고

143) Ibid., 115-116.

144) J. Calvin. 기독교강요 I. 6. 3

145) Ibid.

146) 김용섭, op. cit., 80.

147) 정정숙, op. cit., 184.

148) Ibid.

149) 정정숙, op. cit., 32

150) 지원용, op. cit., 245-246.

하므로서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주장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서문에서 인간의 제일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밝히므로 칼빈의 교육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는 성경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있음을 말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다. 칼빈은 지식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교육행위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한 독특한 인물이다.<sup>151)</sup>

루터는 교육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고, 칼빈은 교육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양자는 이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방편임을 확인하였다.

## B. 교육 내용

### 1) 루터의 교육내용

루터의 교육관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앞에서 종교가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중에서 종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루터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첫째가는 교재이며 교육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선포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없이

151) 강용원, op. cit., 119.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sup>152)</sup>

루터는 교육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밑에 두고 '율법'과 '복음'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것 같이 교육의 성취여부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sup>153)</sup>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sup>154)</sup> 성서가 모든 교재의 으뜸이 된다. 신학적인 학문이건 실제적 자연적 정신적 학문이건간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시 다음에 올 수 밖에 없다.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일종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기초 훈련은 루터에 의해서 장려되었다.

그는 "대소 요리 문답서"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 곧 십계명과 신조 및 주기도문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교리 문답서는 애독할 책이고 평신도의 책이라고 하였다. 그의 소요리 문답서는 아이들과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독교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sup>155)</sup> 그리고 소요리 문답서를 완전히 배운후에는 순서에 따라 대요리 문답서에 의하여 연구를 계속토록 해야한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바로 배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sup>156)</sup>

성경다음으로 루터가 특히 강조한 교육분야는 어학과 음악이다. 언어 교육에 대한 루터의 강조는 그가 1524년에 기록한 논문 가운데서 볼 수 있다.<sup>157)</sup> 신앙문제에 관한 유일한 권위로서 루터가 성서를 강조한 것은 그의 동료들로 하여금 성서를 읽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이 필요성 때문에 루터는 모든 사람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렸

152) 지원용, op. cit., 225 .

153) Ibid., 225-226.

154) Ibid., 225-226.

155) Ibid., 226-227.

156) Ibid., 227.

157) 정정숙, op. cit., 37.

을 적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성서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어연구를 장려하였다.<sup>158)</sup>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로써 일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sup>159)</sup> 어린이들이 자국어를 배워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학교 교육의 기본 내용이 된다.<sup>160)</sup> 루터가 특히 언어들이라고 말할때 그는 특별히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독일어를 뜻한바가 있었다.<sup>161)</sup> 비록 복음이 다만 성령을 통하여 오며 날마다 오지만 그것이 언어를 통하여 오며<sup>162)</sup>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통하여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의 오묘한 진리를 알아 들도록 만드셨다.<sup>163)</sup> 언어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가르칠 수 없고 누구나 진리를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히브리어나 희랍어와 같은 성서와 관련된 고전어 및 다른 언어를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루터는 분명한 태도를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정확히 그리고 쉽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즉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sup>164)</sup> 종교개혁자 루터의 언어연구 다음으로 음악처럼 힘있게 강조한 과목은 없다. 음악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우울하고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루터는 많은 찬송가를 지어 독일 교인들에게 주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은사라고 보았다. 모든 영적인 노래와 음악과 악기들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데 대한 내적인 희열을 증거한다.<sup>165)</sup>

158) 지원용, op. cit., 227.

159) Elmer L. Towns, op. cit., 155.

160) 정정숙, op. cit., 37.

161) Ibid., 116.

162) 지원용, op. cit., 228.

163) 지원용, op. cit., 229.

164) Ibid.

165) Ibid.

그는 그 밖의 교양 과목도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폭넓은 교육 과정을 모든 학교들을 위하여 제창하였다.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 문학, 시, 역사, 수학, 체육 그리고 심지어는 기하학, 천문학같은 자연 분야까지 가르칠 것을 촉구하였다. 루터는 인문주의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가급적이면 폭넓은 문화와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6)

그는 교양과목의 창시자들이 “비록 이교도들이기는 했지만 학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교양학과의 전반적인 가치를 크게 강조하였다. 그는 교양학과의 전반적인 가치를 강조하였고 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이며 고귀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의 거룩한 이름의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167) 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인문주의는 피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인간의 지혜와 교양학문이 신의 고귀한 선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와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울 수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울 수 있는가를 상세히 배울 수는 없다.” 168)

루터는 본질적으로는 문화가 목적이 아니며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 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였다. 문화적인 추구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역동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창조적인 힘으로서의 기독교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신성한 힘을 무시하는 모든 학교들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169)

이상에서 고찰한 바 대로 루터의 교육내용은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요약한다면 성경을 제일 위주로 하며 그것

166) Elmer L. Towns, op. cit., 164.

167) Ibid., 165.

168) Ibid., 158.

169) Ibid., 162-163.



을 위한 언어 교육 그리고 음악 교육과 일반 교양 과목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는 폭넓은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170)

## 2) 칼빈의 교육 내용

칼빈은 1538년에 작성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의 영역에서도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육의 교사인 성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 만일 참다운 종교를 조금이라도 알고자한다면 먼저 하늘의 교시를 받아야하며 또한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정당하고 건전한 교리의 가장 작은 조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그 안에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에 대해 파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교사다. 학교 또는 교과목은 성경이다. 인간은 학생이다. 우리가 배울수 있는 유일한 교장은 성경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이다.”<sup>171)</sup>

이처럼 파거의 파악은 칼빈의 생각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의 토대는 성경을 통해서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

170) 정정숙, op. cit., 37.

171) 강용원, op. cit., 158.

시며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는 언제나 성경위에서만 그의 신학적 프로그램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sup>172)</sup> 여기에서 한가지 칼빈에 있어서 독특한 것은 일반 교육영역에서도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인간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성서의 건전한 지식은 교육의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sup>173)</sup> 칼빈은 많은 개혁자와 함께 성경 교육을 중시하였고 이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강해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방대한 주석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교육하기에 힘을 썼으며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해 '신앙 지도서'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을 저술하였다.<sup>174)</sup>

그는 여러가지 교회헌법속에서 이런 성경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강력히 실천하였고 모든 교육 활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향하였다.<sup>175)</sup> 이 요리문답은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책들이다.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이 문답서는 1부에서 믿음, 2부에서 율법, 3부에서 기도, 4부에서 성례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목사와 어린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칼빈의 큰 공헌중의 하나다. 이 요리문답은 교회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삶의 원리와 방향을 가르친다.<sup>176)</sup> 칼빈은 제네바에서 신앙 질서를 위하여 각종 문서를 간행하였다.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를 간행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 '신앙 지도서'이다. 모두 3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논문적으로 그 내용을 부모들이 이 책을 기초

172) Ibid., 118-119.

173) Ibid., 119.

174) Ibid.

175) Ibid., 119-120.

176) 정정숙, op. cit., 176-177.

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졌다. 부모가 이 책을 소화한 후에 자녀들에게 보다 쉽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회를 위한 칼빈의 문서들은 언약적인 관계에서만 자녀교육과 부모의 책임을 위한 항목들이 많다.<sup>177)</sup>

칼빈은 인문과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칼빈은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문서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며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준다.<sup>178)</sup> 그러기에 우리는 인문과학을 경시해서는 안된다.<sup>179)</sup>

칼빈과 인문주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의 교육적 의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sup>180)</sup> 칼빈이 최초로 인문주의에 심취된 것은 사실이나 르네상스 휴머니즘사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휴머니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바탕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고전이 인간의 정신생활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다.<sup>181)</sup> 물론 성경과 고전문학은 그 궁극적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전의 가치와 일반지식의 효능에 대해 무시하지 않았다. 칼빈은 인문주의 교육을 체득했지만 결코 그것을 숭상하지는 않는다. 그는 철학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동화하지는 않는다. 그는 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판했던 독보적인 존재이다.

### 3) 루터와 칼빈의 교육내용 비교

177) Ibid., 177.

178) 정정숙, op. cit., 178.

179) 강용원, op. cit., 116.

180) Ibid., 121.

181) Ibid.

루터는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성경이 첫째가는 교재이며 교육의 방법으로 생각하였으며, 루터는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선포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백성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sup>182)</sup> 라고 말함으로써 루터는 교육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루터의 교육내용에 있어서 성경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것같이 교육의 성취 여부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sup>183)</sup>

칼빈 역시도 루터처럼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강조하였다.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근거가 된다”고 기록한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칼빈도 교육에 있어서 성경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말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가 그 안에서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sup>184)</sup> 칼빈과 루터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일반교육에서도 성경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였다.

루터는 어학, 음악 과목을 강조하였고, 그 밖의 교양과목, 즉, 문법,

182) 지원용, op.cit., 225.

183) Ibid., p. 226

184) 강용원, op. cit., p. 158.

수사학, 논리학, 문학, 시, 역사, 수학, 체육, 기하학, 천문학 분야까지 가르쳐 폭넓은 문화와 접촉도록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교육에 있어서 분질적으로 문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칼빈 역시 루터와 같이 교육내용에 있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권위를 동일하게 강조하면서도 인문과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았다. 칼빈 스스로도 인문주의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인문교육을 체득하였다. 그러나 철학을 배웠으나 그 모든 인문주의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서 모든것을 생각하고 비판하였음을 분명히 보았다.

## 결 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은 모두 말씀 중심의 신학의 기초에 있었다. 성경이 그들 사상의 출발이었으며, 활동의 바탕이었다.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 종교개혁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권위를 말씀 아래 복종시키므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무오 사상을 무너 뜨렸으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여 인위적인 교리인 공적 사상과 미신을 벗겨 버리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성경 말씀을 확증하였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인간을 구원하고 오류와 부패에 빠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활발한 교육적 활동을 하였다.

또 교회를 형성케 하고 존립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밝혔다.

비성경적이고 인위적인 교리위에 서 있는 로마교를 대항하여 바른 신

학 사상과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는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필수적였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 확장, 개혁시키기 위하여는 교육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 만은 아니다. 어쩌면 더 심각하고 복잡한 형태로 부각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때에 교회와 목회자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므로써 교회의 살아있고 운동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 운동이 고신 교단과 한국교회에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 참고 도서 □

- 강용원 .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부산:교회문제 연구  
소, 1981
- . “기독교 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고신대 교수 논문집 제12권  
」, 1984
- 김규원 “루터의 교육 사” 「전주 문석대 논문집 제 4 집」, 1982
- 김득용 . “칼빈의 교회교육 연구” 「신학지남」 여름호, 1985
- 김용섭 .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신대 교수 논문집 제 13 권」, 1985
- 김봉수 . 「교육사」 서울 : 학문사, 1983
- 김이태 . “칼빈의 교회혁신의 저력” 서울 : 기독교 사상사, 1975
- 이근삼 . 「칼빈 칼빈주의」 부산 : 고신대 출판부, 1976
- 이승기 .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 연구”  
대전 : 침신대학원 논문, 1988
- 이장식 . 「기독교 사상사」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66
- 윤두호 . “루터와 칼빈 교육사상 비교연구 ”  
서울 : 장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지원용 . 「루터의 사상 - 교육과」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 정상운 . “루터의 교회관에 관한 연구” 서울 : 침례 신학대학원, 1986
- 정정숙 .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 출판부, 1983
- 홍치모 . 「종교 개혁사」 서울 : 성광 문화사, 1977
- J. Calvin.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 . 서울 : 해문사. 1982
- 니 켈 .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73

- 파 커 「칼빈의 모습」 김재준 역. 서울 : 기독교 서회, 1985
-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김문제 역. 서울:혜 문사, 1982
- Justo L. Gonzalez . 「기독교 사상사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